한국전력기술인협회신임회장

최 광 주 광득종합건설 대표이사

“내실과 화합으로 전력 기술인의 굳건한 토대 마련할 터”

100만 전력 기술인을 대변할 새로운 수장으로 최광주 광득종합건설 대표가 선임되었다. 40년 전기 기술인이자 성공한 건설 경영인인 그는 최근 경선을 통하여 제5대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에 당선되었다. 지난달 24일 협회장으로 취임한 그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협회, 내실과 화합의 신바람 협회를 실현하여 기필코 미래발전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주 회장은 평소 배짱이 두둑하고 추진력이 강한 리더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항상 주변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은 이러한 열정과 섬김의 리더십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기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추진 등으로 관련 업계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최광주 회장이 구원 투수로서 제몫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광주 회장은 올해로 전기인의 길을 걸은 지 40년이 됐다. 군대에서 조차 발전기 운용병으로 근무를 했으니 전기를 빼면 지나온 인생을 말할 수도 없다. “공고를 졸업하고 사회 첫 발을 내딛을 때만 해도 전기주임기술자 3급 자격증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대학과 대학원에서도 전기를 전공하였습니다. 전기공사의 감리 · 감독 업무, 건설업체 전기 책임자 등을 거쳐 43세에 건설회사를 만들어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바로 전기기술자 자격증 때문이었지요.”

전력 기술인으로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최광주 회장은 이제 그 빚을 갚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는 빌미로 각종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전기기술자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이유로 전기 안전관리의 선임 자격 기준 및 선임 대상 설비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계의 요구로 통합감리제도 및 감리용역 발주임의화 추진 등 건설관련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중입니다. 이에 우리 전력기술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발전적인 업역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최광주 회장은 이러한 업역 확보를 위해 향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논리를 개발하고 객관성 있는 자료 확보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중요성 도부각시켜 나갈 계획이다. 전기 안전 관리자가 있어서 정전이나 전기 재해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언론 및 공공 교육장을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해 나감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최광주 회장은 협회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전임 회장들이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교육장이 지하에 위치하고 비좁아 쾌적한 연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 충북 음성에 1만 4,000평 부지에 연면적 3,000평 규모의 자체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 자체로 30억 원을 조달하였는데 앞으로 나머지 150억 원을 R&R 자금으로 충당하여 회원들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교육의 전당을 건립하겠습니다.”

최광주 회장은 대한건설협회 경남도회 부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2000년부터 창신대학 겸임교수를 맡아 강사료와 사재를 합해 장학 사업을 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21세기 이순신연구회 회장을 맡아 우리 역사를 세계에 알리는 등 다방면에 걸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CJ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